

필름업계 신규참여업체와 설비증설로 총체적 불황

가능성 필름개발 · 세계 각국으로의 폭 넓은 수출로 대응해야

합성수지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이 95년과 같은 2.8%수준에 그쳤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선진국도 2.3% 성장한 수준이고 아시아 신흥국이 7.2%, 중국이 9.6%, 중남미 3.0%, 구소련·동구 0.3%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GDP 6.9%성장으로 95년 9.0%가 성장한데 비교하면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업계의 불황이 염려되고 있다.

지난해 합성수지 내수증가율은 7.3%이며 수출단가도 18.6%증가했다.

96년 에틸렌 수요를 보면 내수는 3,713천톤으로 6.9% 증감하였고, 수출은 300천톤으로 6.7%증감했다. 또한 에틸렌을 제외한 합성수지는 내수가 3,892천톤으로 7.3%증가, 수출이 2,994천톤으로 12.1%증가했다.

97년도는 합성수지 수요가 4,096천톤으로 5.2%증가하고, 에틸렌이 4,244천톤으로 14.3%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석유화학제품 시장은 비교적 물량은 95년보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요인으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외형이 커지고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격형성이 관건인데 국제가격에 따라가는 경향이나 사실상 제조원가를 커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합성수지는 수입이 많아 예년에 비해 17%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중국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여 의존도가 약 40%정도다.

가격은 지난해 4사분기부터 조금 상승되고 있는데 올해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올해 석유화학업계는 한화종합화학이 PP를 신설하는 것 외에 대립, LG등의 증설이 예상되며 세계적인 경제전망이 밝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때 큰 변화없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OPP 필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필름업계는 한정된 시장에 비해 늘어나는 공급과잉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간에 자구책 마련이 한창이다.

품 목	'96년 실적(추정)					
	생 산	관 매			수 입	국내수요
		국내	수출	계		
에틸렌	3,930 (5.6)	3,631 (6.3)	300 (-6.7)	3,931 (5.2)	82 (43.1)	3,713 (6.9)
LDPE	1,224 (2.4)	667 (8.3)	554 (3.8)	1,221 (6.2)	37 (-5.0)	704 (7.5)
HDPE	1,334 (8.0)	706 (5.9)	644 (10.2)	1,349 (7.9)	7 (-2.5)	712 (5.8)
P P	1,732 (7.4)	805 (9.4)	886 (5.2)	1,691 (7.2)	16 (24.1)	821 (9.6)
P S	911 (8.2)	516 (2.9)	395 (16.9)	911 (8.5)	21 (33.4)	537 (3.9)
ABS	530 (13.9)	240 (8.5)	290 (22.4)	530 (15.7)	8 (-16.1)	248 (7.5)
PVC	1,009 (12.3)	793 (6.6)	225 (66.6)	1,018 (15.8)	77 (33.3)	870 (8.5)
합성수지계	6,740 (7.9)	3,727 (6.9)	2,994 (12.1)	6,721 (9.2)	166 (16.9)	3,892 (7.3)

(단위 : 천톤, %)

품 목	'97년 실적(전망)					
	생 산	관 매			수 입	국내수요
		국내	수출	계		
에틸렌	4,280 (8.9)	4,164 (14.7)	116 (-16.3)	4,280 (8.9)	80 (-2.4)	4,244 (14.3)
LDPE	1,455 (18.9)	718 (7.6)	729 (31.5)	1,447 (18.5)	22 (-39.3)	740 (5.1)
HDPE	1,432 (7.4)	741 (5.0)	700 (8.7)	1,441 (6.8)	6 (-9.0)	747 (4.9)
P P	2,145 (23.8)	862 (7.1)	1,250 (41.1)	2,112 (24.9)	10 (-37.9)	872 (6.2)
P S	947 (4.0)	536 (03.9)	411 (4.0)	947 (3.9)	18 (-14.3)	554 (3.2)
ABS	696 (31.3)	260 (8.3)	433 (49.3)	693 (30.8)	8 (-4.8)	268 (7.9)
PVC	1,066 (5.6)	840 (5.9)	228 (1.3)	1,068 (4.9)	75 (-2.6)	915 (5.2)
합성수지	7,741 (14.9)	3,957 (6.2)	3,751 (25.3)	7,707 (14.7)	139 (-16.1)	4,096 (5.2)

특히 OPP업계는 기존 생산업체의 자리유지와 새로 시작하는 대기업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96년에 새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를 포함한 국내 OPP총 생산 능력은 약 14톤 정도이고 내

수는 6만7천톤, 수출은 3만5천톤으로 추정된다.

95년 호황을 누렸던 것과 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줄고 내수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인데 세계적으

로도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져 더욱 어려운 하반기를 보냈으며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수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올해는 신규업체가 생산에 본격 생산에 들어가거나, 참여를 서두르고 있어 업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

공급과잉 상태라 기존업체들도 증설을 기피하고 있고 신규참여 업체의 설비확보가 어느정도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영광화학을 인수하고 원료업체로써 처음으로 OPP필름시장에 뛰어들어 대립산업은 올해 연간 만 톤생산이 가능한 브르크너 설비 1대를 설치하고 7월부터 가동하여 일부 판매에 들어갔으며 9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산 15000톤 규모의 최신 고속화기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용 OPP필름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98년에도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어 연산 55000톤을 규모를 확보하는 대단위 OPP필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울촌화학은 올해 수출을 늘렸으며 내년 내수시장이 어려울 것에 대비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96년 4사분기부터 전반적으로 불행인 시장 탓으로 중국시장을 뚫기가 어려웠던 삼영화학은 올해 미주와 남미쪽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식품용과 문구용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내년 하반기 신규업체 생산에 따라 역시 수출에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삼영의 설비는 낙후된 것이 많지만 4년전부터 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생산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화승은 지난해 내수·수출에 있어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 상반기는 경기불황, 하반기

는 신규업체의 참여로 시장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제일합섬과 합병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있는 새한미디어는 지난해 말 브르크너사로부터 연간 2만톤 생산 가능한 라인을 발주하고 올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새한은 주로 수출에 주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곧 한 라인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 매출의 60%가량을 OPP필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서통은 지난해 기존 6대 설비중 필리핀자사로 2대를 이전했다. 서통은 국내 경쟁력이 심화될 것을 예상 해외기지를 중심으로 세계전지역으로의 수출을 꾀하고 있다.

국제 필름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지난해말 레진가격이 상승하여 업계가 긴장되어 있는 OPP업계는 96년 9월까지의 각사 생산·판매량이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나 내수가 비교적 호황이었던 것에 반해 중국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보다도 97년 하반기 대립 2호기가 도입되면 더욱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PET필름업체인 SKC도 98년 사업시작을 목표로 진천에 공장을 세우고 년 3만톤 설비를 들여올 계획을 밝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덩핑이 우려되고 있다.

매년 6~7%의 성장을 보여왔던 OPP필름 성장율이 지난해 불과 5%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추세가 이어지면 기술력과 투자여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므로 업체들은 수축필름 등 기능성 필름으로의 제품의 다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CPP 필름

OPP출현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CPP필름시장은 이로 인해 매년 생산·판매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에 비해 내수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업체별 생산량을 보면 서통 7800톤, 삼영 5400톤, 삼민 4000톤, 유상 6600톤, 성일 6000톤, 삼진 840톤 생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큰 증설의 움직임이 없고 기린화학이 지난해 상반기 월 250톤이 생산 가능한 설비를 확보하고 생산에 들어갔으며 삼민화학도 지난해 하반기 1라인을 설치 했으나 아직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신기계 도입과 더불어 품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민은 시장변화에 대응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 및 기능성 필름을 개발하여 시장에 대처할 것을 밝혔다.

시장에 비해 계속적인 과잉공급상태여서 당분간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CPP증착필름 용도는 끊이지 않아 지난해에도 일반 CPP는 줄어든데 반해 증착 CPP는 늘었다.

특히 여름, 가을 스낵시장이 안좋아 식품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시장의 특성상 식품산업이 활기를 띠면 호조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체들은 수출에 적극 주력하고 고기능성 필름개발에 힘써 어려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립이 CPP필름 생산도 고려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기술에 투자하여 일본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필름을 생산할수 있는 수지개발에 힘쓰고 중소기업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

발, 생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수지가격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PET 필름

PET필름업계에서도 신규참여 업체와 기존 업체증설로 인한 공급과잉현상도 나타나 어려운 국면을 맞고있다.

세계적으로 PET 필름의 규모는 연간 92만4천톤이며 성장률은 후진국일수록 매년 증가율이 높고 우리나라는 10~20%, 일본 5%, 선진국은 3%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포장용 PET필름 국내 총 생산은 6만톤정도로 보여지며 내수시장은 연 5~7%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SKC, 제일합섬, 코오롱, 서통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 오다 최근 고합, 효성 T&C, 화승인더스트리가 PET필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있다.

업체별로는 지난해 SKC가 총 9만5천톤을 생산하여 마그네틱 5만톤, 포장용 7천톤, 산업용 2만9천톤, 증착용으로 9천톤을 공급했다. 또한 97년에는 이에 8% 증가된 12만6천4백톤이 생산될 계획이다. 올해는 내수로 2만6천4백톤, 자체사용분 2만6천4백톤, 수출은 4만2천2백톤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합섬은 지난 7월 2라인을 증설하고 12월에 1라인을 증설함으로써 8라인을 확보하고 4만5천톤을 생산하여 자기용 3만7천5백톤, 산업용으로 7천8백톤을 공급했으며 97년은 5만4천톤 생산에 4만5천톤은 자기용, 3만3천톤은 산업

용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코오롱은 지난해 포장용 2라인을 증설하고 총 4만톤을 생산하여 얇은 포장용도로 1만8천톤, 두꺼운 포장용도로 만톤, 비디오용으로 1만2천톤을 공급했으며 97년에는 만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유저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서통은 지난해 4800톤을 생산해 3000톤은 내수, 1800톤은 수출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유저들에게 PET를 한정적으로 공급하여 제품판매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지난해 연간 만2천톤 설비 2대를 울산공장에 도입하고 공장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 고희은 내년 2사분기 초쯤 공장이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수출을 목표로 포장용과 앨범용으로 판매할 계획인 고희은 PET필름외에도 NYLON 필름 사업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효성생활산업은 연간 1만 2천톤을 생산 가능한 포장·자기 겸용 설비 1라인을 구미공장에 설치하고 내수와 수출을 50:50비율로 올 7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98년 중

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공급량이 확보되어 있어 물량소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도 지난해 발주에 들어가 올해 1라인을 들여와 테스트기간을 거치고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처럼 업체들의 대단위 출현과 증설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업계는 96년초기에는 시장이 호황을 누리려 산업용, 자기용 가격이 올랐으나 원료가 하락되면서 비디오시장이 침체되고 3사분기부터 물량이 남아 필름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자기용 수요감소로 산업용도 따라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따른 유저들이 이득을 보았던 한해였다.

올해는 신규업체 참여로 1사분기말부터 악화될 것이 전망되고 중반기 신규업체 가동후 더욱 어려운데다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라 수출도 어려워 저가의 필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

이선하 기자

원두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카페인과 콜레스테롤 섭취

원두커피 그냥 마시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이 필터로 거른 다음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 영국의 의학 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지가 최근 보도했다.

이 잡지는 네덜란드 위계닝겐 농과대학 연구진들이 펌프형 커피메이커로 원두커피를 끓는 물에 여과시켜 만든 「카페티에르 커피」에서 악성 콜레스테롤(LDL)을 증가시키고 간호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연구진들은 그러나 카페인과 카페올로 불리는 이 유해물질이 종이 필터로 거른 커피에서는 전혀 발견

연구진들이 커피를

마시는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페티에르 커피를 마신 22명의 경우 유해물질의 혈중농도가 80%나 늘어난 반면 종이 필터로 거른 커피를 마신 24명은 이같은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모브 어거트 박사는 「대부분이 카페티에르 커피를 좋아하지만 하루 한잔이나 두잔은 거의 위험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카페티에르 커피를 하루 5~6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종이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